

기후위기 시대 위험상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관계 실현

- 기상레이더 자료 해석 및 예보활용 기술 교육으로 개도국 방재기상 능력 제고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라오스,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6개국 14명의 레이더 담당자와 실무예보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상레이더 자료 활용능력 향상 과정’을 6월 17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2주간 초청 연수 방식으로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운영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나라별 레이더 활용 위험기상 분석 사례 발표, 기상레이더 기본이론 및 관측원리, 기상레이더 자료 해석 및 예보활용 기술 등이며, 국내 레이더 설치 지점, 국가기상센터,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등 현장 교육을 통하여 기후위기 시대 위험기상 조기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상청은 국제개발협력(ODA¹⁾) 사업의 하나로 1998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개발도상국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한 외국인은 총 96개국 1,429명에 이른다. 기상청은 세계 기상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적 역할을 인정받아 2015년 세계기상기구(WMO²⁾)로부터 아시아지역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서울(WMO RTC-Seoul)’로 재인증되어 운영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기상레이더 자료 활용 기술이 아시아 각국의 기상예보 역량 향상과 위험기상 조기 대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1)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2)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붙임 외국인 기상레이더 자료 활용능력 향상 과정 입교식 사진

담당 부서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경립 (02-2181-0031)
		담당자	사무관	김은숙 (02-2181-003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입교식 사진 |